

스펜서의 『요정 여왕』 제2권에 나타난 권력의 가면 벗기기 *

유 인 철

연세대학교

I. 머리말: 스펜서와 권력

스펜서(Edmund Spenser)는 자신의 마지막 작품인 『요정 여왕』(*The Faerie Queene*)을 통해 바람직한 도덕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할 것을 천명하지만,¹ 이 서사시에 담긴 여왕에 대한 찬사 때문에² 그는 19세기부터 여왕 “엘리자베스에게 아첨하는 시인”(Marx 305)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20세기 후반에도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2314).

¹ 『요정 여왕』의 끝부분에 자신의 친구이자 후원자 롤리경(Sir Walter Raleigh)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첨부한 글에서, 스펜서는 완벽한 기사의 덕목을 독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젠틀맨을 육성”(“to fashion a gentleman”) 하는 것, 즉 이상적 기사가 갖춰야 할 도덕적 자질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밝힌다(“Letter to Raleigh”).

² 스펜서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찬양하는 대표적 예는 그녀를 여신과 귀부인으로 호칭하는 다음 구절이다: “천상의 빛으로 빛나는 여신이시여,/ 은총과 신성한 왕권의 거울이신/ 가장 위대한 섬의 위대한 귀부인이시여”(“O Goddess heauenly bright,/ Mirrour of grace and Maiestie diuine,/ Great Lady of the greatest Isle”)(I. Proem 4). 모든 스펜서의 『요정 여왕』 인용은 Edmund Spenser. *The Faerie Queene*. Ed. by A. C. Hamilton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77)에 근거하고 인용문은 괄호 안에 권, 칸토(Canto), 연(stanza) 번호를 순서대로 표시한다.

다수의 스펜서 연구가에게 그의 서사시는 여왕에 대한 “찬양 작품”(Miller 6)으로 인식되어 그는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를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역사주의자들(New Historicists)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식민지배라는 정치적 상황에 주목해서 『요정 여왕』을 통해 당대 여왕을 찬양하는 스펜서가 “영국 제국의 비열한 진실을 은폐하고”(Helfer 17) 영국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다고 보고, 그를 “최초의 탁월한 제국의 시인”(Greenblatt 174)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여왕의 왕권 옹호자로 스펜서를 규정하고 정치적인 면에서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스펜서와 여왕 권력과의 관계의 복잡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한 면만을 강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요정 여왕』의 시인 스펜서를 단순한 엘리자베스의 왕권 옹호자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 서사시에서 여왕에 대한 찬사와 더불어 그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함축되어 있고, 이 작품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그의 또 다른 작품들에 여왕과 여왕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먼저 『요정 여왕』에서 엘리자베스에 대한 비판은 그녀를 상징하는 요정 여왕 글로리아나(Gloriana)의 군주로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을 통해 제시된다. 정의(Justice)를 다루는 제5권에서 기사 아르테갈(Artegall)은 반란군을 진압해서 이레나(Irena)에게 빼앗긴 왕권을 회복시켜 주고, 초토화된 나라를 재건하려고 애쓴다(5. 12. 26). 하지만 그는 요정 궁정의 호출을 받고, 이레나의 나라 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자신의 과업을 중단한다(5. 12. 27). 반란군을 진압하고 국가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아르테갈을 행사 때문에 궁전으로 불러들이고 불가피하게 과업을 중단시키는 것은(5. 12. 27) 군주로서 글로리아나의 비합리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위를 부각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그녀가 상징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군주로서의 자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처럼 갑작스런 아르테갈의 궁중 호출 사건은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자립적인 군주가 아니다”(Hadfield, “Duessa” 66)라는 점을 암시함으로써 군주로서 그녀의 자질을 비판하는 것이다.

스펜서를 단지 왕권을 옹호한 시인으로만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요정 여왕』의 초판본과 중판본 발간과³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시와 산문을 통해, 그가 여왕과 여왕의 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⁴ 1591년에 발간된

³ 『요정 여왕』은 제1권에서 제3권까지를 포함하는 초판본이 1590년에, 그리고 제1권에서 제6권 그리고 제7권의 일부를 포함하는 중판본이 1596년에 각각 출간된다.

자신의 시 모음집 『불평』(Complaints)에 포함된 「어미 후버드의 이야기」(Mother Hubberds Tale)에서, 스펜서는 비록 동물 우화(fable)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강력한 재무장관이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버클리경(Lord Burghley), 세실(William Cecil)을 공격함으로써 여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다.⁵ 숲에서 여우가 원숭이와 함께 잠자는 사자의 “왕관과 홀”(“Crowne and Scepter”)(Spenser, Yale Edition I. 953)을 훔친 후, 왕권의 상징을 몸에 두른 원숭이를 내세워 전제정치를 하고 왕권을 타락시키는 상황을 자세히 묘사함으로써(Spenser, Yale Edition II. 949-1384) 스펜서는 “사악한, 마키아벨리적 여우”(Danner 1)로 평가 받는 버클리경에게 왕권을 대행하게 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지배 행태를 간접적으로 비판한다.⁶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스펜서의 비판적 태도는 1596년에 출판된 그의 산문 『아일랜드의 현상황에 대한 견해』(A View of the Present State of Ireland)에서 여왕의 식민지 정책과 상반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또한 명확히 나타난다. 이 『견해』에서 휴 오닐(Hugh O'Neill)의 반란이 야기한 심각한 영국의 지배력 위기를⁷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국 정부의 방침을 대변하는 유독수스(Eudoxus)는 영국의 무력 개입을 통한 아일랜드 문제 해결, 즉 “아일랜드를 재점령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보내 그곳의 개혁과 적절한 법률 구축을 준비하게 하는 것”(Hadfield, Edmund 67)을 제시한다. 이와 달리 16년 동안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경

⁴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태도는 자신의 작품과 여왕을 연결시키는 “솔직한 아부”와 “언어와 그림을 이용한 비판”으로 양분되어 여왕에 대한 찬양뿐 아니라 여왕에 대한 비판 또한 허용된다(Bertolet 42, 43). 예를 들면, 시드니(Philip Sidney)는 자신의 시 『오래된 아카디아』(The Old Arcadia)를 통해 여왕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1579년에는 직접 여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녀와 프랑스 공작 알렌송(Alen on)의 결혼을 반대하기도 한다(Bertolet 43). 따라서 스펜서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여왕에 대해 찬양할 뿐만 아니라 비판을 한다는 것은 그만의 특별한 면은 아니라 할 수 있다.

⁵ cf. 스펜서의 「이야기」가 여우를 통해 버클리경을 풍자한다는 일반적인 비평적 견해와 달리 헤론(Thomas Herron)은 이 「이야기」를 아일랜드(Ireland)와 연관시켜 “타락하고 위선적인 아일랜드 거주 영국인 행정부와 행정관이자 성직자 우두머리인 로프투스”를 풍자의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364).

⁶ 버클리경을 풍자의 대상으로 해서 여왕을 비판하는 스펜서의 「이야기」는 비판의 심각성 때문에 국가 검열의 대상이 되어 스펜서가 1599년 죽고 난 후 10년이 지난 1611년까지 재발간이 통제된다(Danner 15).

⁷ 1594년에 시작된 휴 오닐의 반란은 “아일랜드에서 영국의 지배에 대항하는 그 때까지 가장 심각한 공격”(Hadfield, Edmund 48)으로 평가 받는다.

힘을 바탕으로 스펜서는 아일랜드 거주 영국인(New English) 이레니우스(Irenius)의 주장을 통해 여왕이 직접 권력을 행사해서 아일랜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야만 지역을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Hadfield, Edmund 67)이 왕권의 대행자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자신의 산문 『견해』를 통해 아일랜드에서 직접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의 현지 상황을 잘 아는 권력의 대행자를 활용해서 질서 회복과 개혁을 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스펜서는 영국 정부 나아가 여왕의 식민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저항하는 자신의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게 된다.

『요정 여왕』에서 여왕에 대해 찬양하면서 또한 여왕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포함하고, 이 작품과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다른 시와 산문에서는 여왕의 지배행태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그의 양면적 태도 때문에 스펜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권력에 대해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비판만을 한 시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왕과 스펜서의 관계는 단순히 권력자와 그 권력의 지지자 혹은 비판자가 아닌 새로운 관계로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은, 1590년대에 발간된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 스펜서가 권력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을 그의 기회주의자적인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권력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는 그의 권력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해한다. 특히 1590년에 발간된 『요정 여왕』 초판본의 제2권이 권력 자체에 대한 그의 관심과 통찰을 잘 드러낸다고 보고, 본 논문은 20세기 대표적인 권력 이론가로 알려진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 논의를 바탕으로 제2권에 대한 다시 읽기를 시도한다. 권력에 초점을 맞춰 『요정 여왕』 제2권을 논의함으로써, 본 논문은 권력의 구성 요소와 작동 과정, 그리고 새롭고 효과적인 권력 사용 방법을 제시하는 스펜서가 권력의 가면을 벗겨 숨겨진 본체를 드러내는 권력의 탐구자라는 것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그의 관련성을 권력의 교육자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제시하려고 한다.

II. 『요정 여왕』 제2권: 권력의 가면 벗기기

1. 푸코의 권력 이론⁸

20세기 후반 권력 논의의 중심인물인 푸코는 권력을 두 가지 종류, 즉 제왕적 권력(the sovereign power)과 감시적 권력(the disciplinary power)으로 구분해서 논의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의 중세 시대부터 국왕이 소유했던 권력이 제왕적 권력이며, 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감시적 권력이 18세기경부터 서서히 등장한다.⁹ 그는 권력의 “목적, 대상, 적용 영역, 혹은 그것이 뿌리 내리고 실제 영향을 미치는 장소”(Foucault, “Society” 28)를 연구함으로써 두 가지 권력의 각기 다른 구성 요소와 고유한 작동원리를 밝히려고 한다.

푸코는 법, 군주의 권리, 그리고 무력을 사용한 위법자 처벌, 이 세 가지를 제왕적 권력의 주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이것들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제왕적 권력이 작동된다고 주장한다. 법은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의 이익과 요구에 따라 왕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 혹은 [왕권의] 정당화”(Foucault, “Society” 25)의 역할을 한다. 제왕적 권력을 사용하는 국왕의 지배는 “군주의 합법적인 권리와...[백성의] 복종해야 할 법적인 의무”(Foucault, “Society” 26)로 분해되어 대체됨으로써, 국왕이 제왕적 권력을 사용해 백성을 지배하는 것은 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 행사가 된다. 제왕적 권력의 핵심요소는 칼로 상징되는 무력을 사용해서 타인의 “목숨을 ‘빼앗거나 살려 줄 권리’(Foucault, *History* 136)를 법적으로 부여 받고, 제왕적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범법자를 의식에 따라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¹⁰ 이와 같은 처벌 과정을 통해, 제왕적

⁸ 자신의 권력 분석이 “권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푸코는 권력 자체를 규정하려 시도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권력이 물질이나 유체 혹은 어떤 특정한 원천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작동방법과 과정의 집합체의 관점에서 권력”을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Foucault, *Security* 16).

⁹ 유럽에서 감시적 권력이 등장한 것은 제왕적 권력이 “대중의 행위를 지배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서 점점 덜 효율적”이 되어, “새로운 사회적 통제 기술”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푸코는 설명한다(O’Farrell 102). 그런데 감시적 권력은 제왕적 권력을 대체한 완전히 새로운 권력이 아니라, 이미 “수도원, 군대, 작업장에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지배 방법으로서, 17세기와 18세기를 거치면서 “일반적인 지배의 방식”이 된 것이다(Foucault, *Discipline* 137).

¹⁰ 무력을 사용해 범죄자에게 가혹한 신체형을 부과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군주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즉, “법은 군주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은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과시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Foucault, *Discipline* 187) 된다.

제왕적 권력이 법, 군주의 권리, 그리고 위법자의 처벌에 의존하고 이것들을 통해 작동하는 반면에, 감시적 권력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규범(norm), 규범을 벗어난 행위의 교정(correction), 그리고 교정을 통한 정상화(normalization)라는 세 가지 요소에 기반 해서 생성되고 행사되는 것이라고 푸코는 설명한다. 왕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해서 그것을 소유하는 자와 그것에 예속된 자로 나뉘는 제왕적 권력과 달리, 누구나 감시적 권력의 주체이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감시적 권력은 지식이나 담론(discourse)에 포함되어 사회내의 어느 곳이나 존재하며, 사회 내의 각각의 “개인들이...이 권력에 복종하고 또 [권력을] 행사해서...이들을 통해 권력이 유통된다”(Foucault, “Society” 29). 제왕적 권력이 왕권을 보장하는 법에 의존하는 반면, 감시적 권력은 “특정한 권력의 행사가 근거하고 합법화되는 요소”(Foucault, *Abnormal* 50)인 “규범”에 기초를 두고 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 법을 위반한 자를 무력을 사용해서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제왕적 권력 작동의 핵심이라면, 감시적 권력은 “적어도 원칙적으로, 과도함, 물리력이나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Foucault, *Discipline* 177) 규범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벗어난 개인들을 끊임없이 “감독하고, 훈련시키고, 교정해서”(Foucault, *Discipline* 55) 그들의 몸을 전체 사회나 특정한 기관의 규범에 “‘순종하는’ 신체”(“‘docile’ bodies”)(Foucault, *Discipline* 138)로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행사된다.¹¹ 학교, 병원, 공장 그리고 교도소와 같이 감시적 권력이 작동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에서는, 법보다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합의된 정상성(normality)이¹² 개인간의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그를 “사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되고, “법의 힘이 군주의 힘”이기 때문에, 범죄는 그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Foucault, *Discipline* 47).

¹¹ 따라서 감시적 권력 하에서 처벌은 “의무 자체와 동일한 것이며, 법 위반에 대한 보복이라기보다는 의무의 반복이자 반복된 강조이다...[즉] 처벌은 훈련이다”(Foucault, *Discipline* 180).

¹² 정상성의 개념은 근대 의학의 관심 과제 변화와 특히 연관되어 있다. 18세기까지 의학은 개인의 건강을 강조해서, 식이 요법이나 생활 규율 개선 등을 통해, 건강한 상태로 원상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감시적 권력이 뚜렷하게 등장하는 “19세기의 의학은...건강보다 정상성에 따라 더 규제되어서” 신체 기능에 이상이 없는 개인의 건강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상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Foucault, *Birth* 35).

동질성을 강제하고 절대적 균등을 지향해서, 모든 개인의 정상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제왕적 권력 하에서 범 위반자를 왕권에 대한 도전자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감시적 권력의 주요 목표는 정상성을 벗어난 인물을 “위험하고 괴물 같은” 존재로 인식해서 이 “‘규범’에서 이탈”한 비정상적인 개인을 “치료하고 재활”시키는 교정 과정을 거쳐 정상화시키는 것이 된다(O’Farrell 104). 한 편, 제왕적 권력이 공개적 처형을 통해 작동하고 실체가 드러나는 것인 반면에, “감시적 권력은...그 자체를 보이지 않게 하면서 행사 된다”(Foucault, *Discipline* 187).¹³

2. 『요정 여왕』 제2권: 스펜서의 권력 탐구

푸코가 권력을 제왕적 권력과 감시적 권력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주요 요소와 작동 방식을 논의하는 것은, 『요정 여왕』 제2권에서 스펜서가 제시하는 권력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 푸코의 두 권력 논의의 틀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시대가 여왕의 지배하는 왕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스펜서는 단순히 제왕적 권력의 본질과 한계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푸코가 논의한 감시적 권력과 유사한 작동 방식을 사용하는 새로운 권력을 제시한다.¹⁴ 푸코가 다양하고 구체적인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이 구분한 두 가지 권력을 설득력 있게 차별화시키고 있는 반면에, 스펜서는 여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사인 모험 과정을 통해 기존의 제왕적 권력과 더불어 이전에 전혀 논의 되지 못한—하지만 그 작동 과정과 특성의 많은 부분이 푸코의 감시적 권력으로 설명 가능한—새로운 권력을 뚜렷하게 대비시켜 제시해 준다.

『요정 여왕』 제2권에서 무력 사용에 근거하는 제왕적 권력의 작동 방법은 요정 여왕 글로리아나를 다시 만나기 위해 요정 왕국을 방랑하는 아더(Arthur)를 통해 먼저 드러난다. 알마의 성(the Castle of Alma)을 찾아간 아더는 말레거

¹³ 따라서 감시적 권력이 작동하면 제왕적 권력에 함축된 “군주의 가시성이 백성들의 불가피한 가시성으로 바뀌고”(Foucault, *Discipline* 189), 감시적 권력이 “더욱 익명적이고 더욱 기능적으로 될”수록 이 권력이 행사되는 대상은 “더욱 강력하게 개별화”되는 경향이 생긴다(Foucault, *Discipline* 193).

¹⁴ “푸코의 권력 이론”에서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푸코의 감시적 권력은 특정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펜서가 제안하는 새로운 권력은 제왕적 권력과 마찬가지로 글로리아나와 같은 특정인의 소유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푸코의 감시적 권력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단지 그 작동 방법 면에서 감시적 권력의 작동 방식과 유사한 것이다.

(Maleger)가 이끄는 열 두 무리가 이 성을 공격하자,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잘 검증된 무기”를 들고 성 밖으로 나가 공격자들과 맞서 싸운다(2. 11. 17). 알마의 보호자로서 곤경에 처한 그녀를 구하기 위한 이 싸움에서 말레거를 “호르지 않는 호수”에 던져 넣어 죽임으로써(2. 11. 46),¹⁵ 아더는 무력을 사용해 적을 무찌르고 승리자가 된다.

아더처럼 무력을 사용해 직접적으로 타인을 지배하는 것은 상대를 죽음에 몰아넣음으로써 완벽한 지배를 실현하는 것 같지만, 푸코가 지적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제왕적 권력이 작동한 대표적 예로서 1757년에 국왕 살해를 시도한 다미앙(Damiens)에 대한 잔혹한 공개 처형 과정을 기술하면서, 푸코는 무력에 의존하는 지배가 처벌의 대상과 그 처벌 과정을 목격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효력을 발휘하므로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가혹한 처벌의 목격자들이 훗날 지배에 항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Foucault, *Discipline* 3-6). 푸코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무력을 사용해 아더가 말레거와 그의 추종자를 제압할 때, 그의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그에게 패한 자들에게 한정된다. 또한 말레거를 추종하는 두 노파, 임포텐스(Impotence)와 임페이션스(Impatience)가 말레거가 호수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두 마리의 미친개처럼 땅을 뛰어 다니다” 각각 호수에 뛰어 들거나 말레거의 화살로 자결하는 것은(2. 11. 47), 이들이 말레거를 처벌하는 아더의 무력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무력에 의존하는 지배는 상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권력자의 피해 또한 불가피하다. 아더가 말레거와 그의 일당을 제압하고 그들의 정복자가 되지만, 싸움 과정에서 생긴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 때문에 그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생명이 쇠퇴하는” 피해를 입는다(2. 11. 48).

왕이 갖는 제왕적 권력의 핵심 요소인 무력 사용과 그것의 한계는 요정 여왕 글로리아나와 그녀의 권력 대행자인 가이언(Guyon)을 통해 또한 뚜렷이 제시된다. 글로리아나의 궁전에 팔머(the Palmer)가 찾아와 많은 사람들을 파멸하게 만든 아크라시아(Acrasia)의 악행을 알리자, 요정 여왕은 가이언을 파견해서 아크라

¹⁵ “대지”(“th’Earth”)인 말레거의 어머니가 죽어가는 그를 계속 되살려 주기 때문에(2. 11. 45), 그를 땅에서 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아더는 “그를 더 이상 땅에 내 던지지 않고/ 대지의 무덤에 그를 묻으려 하지도 않고”(2. 11. 45) 대신에 물에 빠뜨려 죽게 한다.

시아의 해악을 바로잡으려 한다(2. 2. 43). 하지만 아크라시아를 처벌하기 위해 가이언의 무력을 사용해 그녀를 제압하려는 글로리아나의 계획은 지배 수단으로서 무력 사용의 한계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제왕적 권력의 근간으로서 무력 사용의 한계는 메디나(Medina)의 성에서 두 명의 사라센(Saracen) 기사들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한 가이언의 무력 개입이 결국 실패로 끝나는데서 확인 된다.

메디나의 성에서 메디나의 언니 엘리사(Elissa)와 동생 페리사(Perissa)를 각각 흠모하는 두 기사 후디브라스(Huddibras)와 산스로이(Sansloy) 사이에 불화가 생겨 싸움이 일어나자, 가이언은 방패와 칼을 들고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싸움을 중지시키려 한다(2. 2. 21). 가이언은 잔인하게 싸우는 두 기사를 무력으로 위협해서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양쪽에서 그를 공격한다. “놀랍도록 위대한 기량과 영웅적 진가”를 발휘해 가이언이 이들을 무찌른 후에도(2. 2. 25), 이들은 가이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분노에 차서 무장한 채 얹혀 있는”(2. 2. 27) 상태가 된다. 결국 무력을 사용해서 불화에 빠진 두 기사를 지배 하려는 가이언의 시도는 실패로 끝난다. 가이언의 이 같은 지배 실패는 무력을 사용한 지배의 한계, 즉 압도적인 무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무력만으로 항상 타인의 지배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타인을 지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 사용이 절대적인 복종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면 무력에 의존하는 군주의 제왕적 권력 또한 실제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제왕적 권력을 갖는 군주는 어떻게 자신의 영토를 안정되고 평화롭게 통치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가이언이 글로리아나를 찬양하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위대하시고 살아있는 가장 영예로운 처녀 여왕은/ 자신의 제왕의 권력과 빛나는 왕권으로/ 요정의 나라 전체를 평화롭게 다스리십니다”(“Great and most glorious virgin Queene aliue,/ That with her soueraigne powre, and scepter shene/ All Faery lond does peaceably sustene”)(2. 2. 40). 가이언이 밝히는 것처럼, 글로리아나가 자신의 요정 왕국을 평화롭게 지배하는 것은 군주로서 갖는 “제왕의 권력”과 “빛나는 왕권”이 결합할 때, 즉 제왕적 권력이 또 다른 왕권과 함께 작동될 때 가능한 것이다.

글로리아나의 제왕적 권력과 결합하여 요정 왕국의 평화 유지를 가능하게 해 주는 “빛나는 왕권”은 무력을 사용한 제왕적 권력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형

태의 권력을 제시해 주는 메디나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가이언과 두 기사
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메디나는 “강력한 손의 힘,” 즉 무력을 사용해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언급함으로써 무력 사용에 의존하는 제왕적 권력의 또
다른 한계를 지적한다: “정당한 명분보다 강력한 손의 힘에 더 의존하는/ 호언장
담은 헛되고, 승리는 정의롭지 못합니다”(“Vaine is the vaunt, and victory
vniust,/ That more to mighty hands, then rightfull cause doth trust”)(2. 2.
29). 이어서 메디나는 싸우고 있는 두 기사를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지배하는 모
습을 보여 줌으로써, 제왕적 권력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권력을 제시해 준다.
제왕적 권력이 왕권 보호와 유지를 위해 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된 법에 의
존하는 것과 달리, 두 기사 사이의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메디나는 그들
이 모두 만족할만한 “조건들”을 설정하려고 시도한다: “그녀는 조약을 맺어서, 하
나의 법조문으로 영원히 존속할, 쌍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조건들을 설정하려
고 애쓰기 시작했다”(“she began a treatie to procure,/ And stablish termes
betwixt both their requests,/ That as a law for euer should endure”)(2. 2.
32). 또한 메디나는 분노와 불화 때문에 싸우는 것 보다 화합과 평화를 통해 “덕
을 함양하고 우정을 굳건하게 하는 것”(2. 2. 3)이 기사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
함으로써, 그들이 기사 사이의 평화의 규범을 “준수할 것을 기사의 언어로 확
언”(2. 2. 32)하게 한다. 아더나 가이언처럼 무력을 사용해 상대를 강제로 제압하
는 방식과 달리, 메디나는 자신의 “품격 있는 언어”(2. 2. 32)를 사용해 두 기사
스스로 동의한 구체적 규정을 기사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기사의 규
범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이 기사의 규범에 따라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이와
같이 불화 때문에 싸우는 두 사라센 기사를 화해시키는 과정에서 메디나는 기존
의 무력에 의존하는 제왕적 권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타인을 지배하는 새로운 형
태의 권력을 보여 준다.

메디나가 두 기사를 화해시킨 후 그들이 평화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배하는
방법은 푸코가 논의한 감시적 권력의 작동 방법과 유사하게, 설정된 규범을 벗어
나는 두 기사의 행동을 올바르게 변환시키는 방식, 즉 정상성을 벗어나는 요소를
교정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적절한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강력한 극단
적 분노”와 같이 규범을 벗어나는 그들의 비정상적인 요소를 완화시키고 누그러
뜨림으로써(2. 2. 38) 비정상적 요소를 올바르게 교정하고, 그 결과 두 기사의 정

상성을 벗어난 일탈행위를 중단시켜 정상화시킴으로써 메디나는 둘 사이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아더와 가이언은 상대의 행위에 대해 무력을 사용해 처벌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지배하려 하지만, 메디나는 설정한 규범을 벗어나는 대상의 비정상성을 정상화시키는 교정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의 저항 없이,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존중받으면서,” 아더와 가이언보다 더 효과적으로 상대를 지배해서 질서와 평화를 가져 온다: “이렇게 해서 그녀[메디나]는 그들 사이에 질서를 유지하고, 그녀 또한 존중받았다”(“So kept she them in order, and her selfe in heed”)(2. 2. 38). 이제 두 사라센 기사의 몸은 메디나의 새로운 방식의 권력 작동을 통해, 푸코가 감시적 권력의 목표로 설정한 사회적 규범에 “순종하는 신체”로 변모한 것이다.

가이언에 의해 글로리아나의 “빛나는 왕권”으로 표현되고, 푸코가 논의한 감시적 권력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권력은 메디나뿐만 아니라 팔머에게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신앙심과 이성을 모두 가진 팔머는¹⁶ 뱃사람을 인도하는 “변함없는 별”처럼 가이언의 안내자로서(2. 7. 1, 2), “항상...계곡과 언덕 너머로 그를[가이언을] 인도[한다]”(2. 1. 34). 팔머가 보여 주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 행사 방식은 가이언을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단순한 안내자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 가이언의 교정자(corrector)로서 그의 역할에서 알 수 있다.

아크라시아에게 희생된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결국 자살하고 마는 아마비아(Amavia)를 보고, 가이언은 걱정이 이성을 지배하면 결국 인간은 파멸한다고 팔머에게 통탄한다: “날뛰는 걱정이...이성에게서 왕권을 빼앗는” 상황이 되면 “강한 자들은 곧 쾌락 때문에 몰락하고, 약한 자들은 상처 때문에 몰락합니다”(2. 1. 57). 인간으로서 필멸의 길에서 구원 받기 위해 가이언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팔머는 “쾌락”과 “상처”라는 두 극단에 인간이 매몰되지 않게 해주는 “중용”이라는 “절제”를 제시한다: “하지만 절제는...황금사각형으로/ 그 둘 사이에서 중용

¹⁶ “순례자”라는 의미의 그의 이름에서 암시되는 것처럼 팔머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신앙심을 표상하고 또한 이성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팔머의 신앙심은 그가 붉은 십자가 기사(Redcross Knight)를 보고 곧 알아보는 데서(2. 1. 31), 그리고 그가 이성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그의 삶”이라는 그에 대한 화자의 평가에서 각각 확인된다(2. 1. 34). 쿠니(Helen Cooney)는 팔머가 붉은 십자가 기사를 즉시 완전하게 인지하는 것은 “올바른 이성,” 즉 “신중함”이고, 가이언이 뒤늦게 그 기사를 알아보는 것은 단순한 이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팔머의 이성과 가이언의 이성을 구분한다(172).

을 찾을 수 있지요”(“But temperance...with golden squire/ Betwixt them both can measure out a meane”)(2. 1. 58). 이와 같이 가이언이 따라야 할 규범을 설정할 뿐 아니라, 팔머는 이 규범을 벗어나는 가이언을 정상화시키는 교정자 역할을 한다. 가이언과 팔머가 “환락의 집”(“the Bowre of Blisse”)(2. 12. 42)으로 가는 길에, 별거벗은 젊은 여인들이 유혹하는 상황에서 가이언이 이 여인들에 대한 욕정을 느끼는 것이 명백해지자(2. 12. 68) 팔머는 절제의 규범을 벗어나는 그의 비정상성, 즉 “그의 방황하는 눈길을 크게 꾸짖고, 적절하게 충고를 해서,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2. 12. 69). 가이언이 절제의 규범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그의 일탈이 발견되면 선생님처럼 꾸짖고 충고하는 훈육을 행함으로써,¹⁷ 팔머는 절제라는 규범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가이언의 욕망을 언어 사용을 통해 교정하고 결국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제왕적 권력과는 다른 새로운 지배 방식을 사용해 메디나가 두 사라센 기사와 평화 상태를 유지하려 시도 하고, 팔머는 가이언이 절제 있는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메디나와 팔머가 제시해 주는 새로운 권력 행사 방식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메디나와 팔머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은 푸코가 논의한 감시적 권력에 가깝지만, 두 인물 모두 실체를 드러내고 직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면에서 실체를 숨기고 어떤 대상에 영향을 미쳐서 그 대상이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푸코의 감시적 권력과는 큰 차이가 있고, 따라서 메디나와 팔머의 지배는 감시적 권력만큼 효과적인 지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⁸ 메디나는 규범을 벗어나는 두 기사의 행위를 자신이 직접 적절하게 교정함으로써 그들을 지배하지만, 둘 사이의 평화는 잠정적인 휴전상태에 불과해서 메디나가 부단히

¹⁷ 톤킨(Humphrey Tonkin)은 “팔머가...가이언에게 위협을 경고하고, 그의 해설자 역할을 함으로써,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가이언을 “훈련”시키는 지도자로서 팔머의 역할을 강조한다(94).

¹⁸ 감시적 권력의 비가시성을 논의하면서 푸코는 영국 철학자 벤담(Jeremy Bentham)이 고안한 팬옵티콘(Panopticon)처럼 대상을 효과적으로 감시(surveillance)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팬옵티콘은 원형 형태의 감옥으로, 중앙에 위치한 탑에서 간수는 주변 감방(cell)에 있는 죄수들을 볼 수 있으나, 죄수들은 간수를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죄수들은 항상 자신들을 간수가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스스로 규제하게 된다: 팬옵티콘에는 “무기, 신체상의 폭력, 물질적인 제약이 필요 없다. 단지 응시만이 필요한 것이다...그 결과 각각의 개인[죄수]은 자신에 대해, 자신을 상대로 감시를 행하게 된다”(Foucault, *Power/Knowledge* 155).

개입하지 않으면 싸움이 발생한다(2. 2. 38). 윌리엄즈(Kathleen Williams)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메디나의 평화 유지 역할은 “위태롭고 유지하기 어려우며, 계속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워질 수 없는 임무”인 것이다(44). 한편, 팔머가 가이언의 과도한 행위를 교정해서 정상화시키는 것 또한 팔머의 직접적 개입을 통한 지배이므로, 두 사람이 분리되어 가이언이 홀로 남게 되면 그는 절제의 규범을 지키지 못하고 극단적 태도를 보인다. 팔머를 홀로 남겨 둔 채 파에드리아(Phaedria)의 작은 곤돌라를 타고 게으름의 호수를 건너 혼자 길을 가게 되자 가이언은 자신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과도한 확신에 빠져, “자기 자신의 덕성과 칭송 받을만한 공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위로한다”(2. 7. 2). 팔머가 과도한 자신감을 교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가이언은 홀로 맘몬(Mammon)의 동굴에서 유혹을 견뎌내다가 “음식과 수면 부족 때문에/ 생명력이 약해지고 시들해지기 시작해서”(2. 7. 65), “결국 치명적인 실신상태에 빠져, 그는 감각이 완전히 없어지게”(2. 7. 66) 된다.

메디나와 팔머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직접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 지배 방식을 보여 주는 반면에, 요정 여왕 글로리아나는 펜옵티콘의 간수처럼 자신의 신체를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¹⁹ 자신의 진정한 의도, 그리고 제왕의 제왕적 권력의 실체 또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요정 왕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한다. 우선 글로리아나는 “자신의 부재 때문에 한층 더 신비로운 힘”(Bertolet 48)을 가질 수 있도록 『요정 여왕』 전체를 통해 직접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뿐 아니라, 가이언과 같은 권력의 집행자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권력이 작동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실제 육체가 드러나지 않게 한다. 또한 가이언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글로리아나는 아크라시아의 소요를 진압하라는 자신의 잔인한 명령을 자비로운 행위로 포장함으로써 군주로서 자신의 의도 또한 철저히 감춘다: 글로리아나는 “고귀한 행위와 즐거움에서 그녀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세상에 자신의 자비를 유지하기 위해,/ 곧 그 같은 소요를 진압할 방법을 생각해 내셨다”(“Whose glory is in gracious deeds, and ioyes/ Throughout the world her mercy to maintaine,/ Eftsoones deuisd redresse for such annoyes”)(2. 2. 43). 제왕적 권력의 주체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

¹⁹ 펜옵티콘에 관한 위의 각주 18 참조.

의 의도를 감추고 권력을 행사하는 글로리아나는 탐욕과 지배욕 때문에 정복과 왕위 찬탈에 몰입하는 제왕적 권력의 추악한 실제 모습도 또한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한다.²⁰ 이와 같이 글로리아나는 권력 자체의 냉혹한 실제 모습을 대중들에게 감춤으로써 견고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스펜서의 권력 개념은 푸코의 이분법적인 권력 개념처럼 제왕적 권력과 감시적 권력과 유사한 권력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는데, 스펜서의 권력 개념은 푸코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제왕적 권력과 감시적 권력이 각각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역사적 시기와 각각의 특성 면에서 대조적이라는 점을 푸코가 강조하는 반면에, 스펜서는 글로리아나가 “제왕의 권력”과 “빛나는 왕권”을 함께 사용해 왕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제왕적 권력과 작동방법이 감시적 권력과 유사한 또 다른 권력을 함께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바람직한 군주의 권력 사용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²¹ 요정 여왕 글로리아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가이언과 팔머가 “환락의 집”을 진압하는 과정은 제왕적 권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감시적 권력에 상응하는 새로운 권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권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가이언과 팔머가 함께 “환락의 집”을 진압하는 것은, 가이언이 대행하는 글로리아나의 제왕적 권력과 어떤 대상을 규범에 맞게 교정해서 정상화시키는 팔머의 감시적 권력의 작동 방

²⁰ 제왕적 권력의 잔인한 실체는 아더가 알마의 성에 들러 음네스테스(Eumnestes)의 서재에서 읽게 되는 『영국의 역사』(*Briton monuments*)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트로이(Troy) 시대부터 아더의 아버지 우더(Uther Pendragon)까지의 연대기(chronicle)를 기록한 이 책은 권력의 역사가 곧 “왕관에 대한 탐욕”(2. 10. 35)과 “끔찍한 지배욕”(2. 10. 47)에서 비롯된 정복과 왕위찬탈의 기록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본질적으로 차비와는 거리가 먼 속성을 갖는 권력은, 항상 공격과 방어 사이에 위치한다. 훗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브리튼(Britain)이라 명명되는 섬에 처음 도착한 브루투스(Brutus)는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야만적인 적들과 큰 전투를 벌인다”(2. 10. 10). 이 후 그의 세 아들들이 각자 자신의 영토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시기에 훈족(the Huns)이 침입하자, 그의 맏아들인 루크린(Lucrine)은 “자신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 그들에게 저항하고, 견고한 요새를 만들었다”(2. 10. 15). 이처럼 왕권을 차지하고 지키는 과정은 끊임없는 전투와 방어인데,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이어서 / 형제와의 전쟁을 일으킨”(2. 10. 35) 포렉스(Porrex)의 경우처럼 왕위찬탈은 피를 나눈 형제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²¹ 스펜서가 제왕적 권력과 감시적 권력과 비슷한 권력을 결합한다는 개념은 푸코의 “독재적 감시”(“a despotic discipline”) 개념과 유사하다. 독재적 감시는 제왕적 권력과 감시적 권력이 결합된 한 형태로, 철저하게 감시적 기구인 감옥이 죄수들에게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그들을 “억압과 처벌의 내적 작동방법”을 통해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Foucault, *Discipline* 235-36).

법을 결합해서 활용함으로써, 무력에만 의존하는 제왕적 권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더 효과적인 권력 행사 방법을 확인시켜 준다.

새로운 권력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은, “환락의 집”이 글로리아나의 권력 유지에 위협적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이 집을 비정상적이고 따라서 전체 사회에 위험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무력을 사용해서 이 집을 파괴하는 행위를 전체 사회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서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영웅적 행위로 만드는 것이다. 글로리아나가 “환락의 집”을 파괴해야 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아크라시아의 과도한 성욕, 즉 “사악한 무절제라는 마약”(2. 1. 47) 때문에 발생하는 그녀의 사악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아크라시아의 악행이 왕권에 직접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집이 파괴되어야 한다는 진정한 이유는 감추어진다. “환락의 집”이 여왕의 권력에 위협적이라는 것은 이 집 주인 아크라시아의 마지막 희생자 버단트(Verdant)에 대한 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훌륭한 기사이면서도 육체적 욕망에 정복되어 “자신의 고결함이 더럽혀”(2. 12. 79) 질 뿐만 아니라, 명예를 얻기 위해 진장에서 용감히 싸우는 기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단트는 강하게 비난 받는다:

그의 전쟁 무기들, 잠자고 있는 한가한
칭찬의 도구들은 나무에 매달려 있고,
오래 된 업적의 기록들로 가득 찬 그의 용감한 방패는
흉하게 지워져서 아무도 그 흔적을 볼 수 없었다.
이 어떤 것이나 명예도 그는 관심이 없었다...

His warlike armes, the idle instruments
Of sleeping praise, were hong vpon a tree,
And his braue shield, full of old moniments,
Was fowly ra'st, that none the signes might see;
Ne for them, ne for honour cared hee... (2. 12. 80)

요정 여왕 글로리아나의 권력은 가이언처럼 군주에게 충성하고(2. 2. 42) 그녀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2. 2. 44) 충직하고 의무감 있는 기사의 무력에 의존한다. 그런데 “환락의 집”에서 아크라시아와 과도한 육체적 사랑에 빠지는 버단트 뿐 아니라, 모단트(Mordant)와 키모클레스(Cymochles)는 모두 요정 왕국의 기사들

로서, 아크라시아의 집에서 기사로서 지켜야 할 왕권 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글로리아나의 안정적인 왕권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권력의 위협 요소가 된 것이다.

“환락의 집”이 글로리아나의 권력 유지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파괴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숨겨진 채 이 집이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곳이라는 점이 강조됨으로써, 가이언이 이 집을 파괴하는 무력 진압은 정당성이 부여된다. 먼저 이 집의 비정상성은 이 집의 아름다움과 관련해서 확인된다. 표면적으로 이 집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원”(2. 12. 58)으로 묘사되지만, 이 집의 아름다움의 실상은 단지 전도(perversion)와 거짓에 불과하다. 이 집은 인간이 만든 예술이 자연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전도된 세계이다. 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포도나무 아치 아래를 지나갈 때 가이언은 포도송이들 중에 “나머지 것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예술을 통해 금빛으로 빛나게 만들어진 것들”(2. 12. 55)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포도가 자연의 일부를 대체하고 차지하는 기이한 형태다. 또한, 이 집이 전도된 세계인 것은 “모든 예술품이 자연보다 더 훌륭하게, 그리고 실제보다 더 낮게 보이게 만든다”(Evans 142)는 점 때문이다. 이 집의 현관에는 “큰 키의 아리따운 인물의 상이 앉아 있는데,/ 자연 보다 더 즐거움을 주어서/ 여행자들은 그 상에 매혹된 것처럼 보였다”(“A comely personage of stature tall,/ And semblaunce pleasing, more then naturall,/ That traueellers to him seemd to entize”)(2. 12. 46). 이 집의 거짓 속성은 이곳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영혼을 유혹하기 위한 덧, 즉 “유혹 과정의 일부”(Leslie 1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이 집의 다양한 요소들은 “살아 있는 귀에 즐거움을 주고/...조화”(2. 12. 70)를 이루지만 이 조화는 인간을 속이고 유혹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규범과 정상성을 벗어나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환락의 집”은 또한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곳으로 묘사됨으로써 이 집의 파괴는 더 큰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 먼저 이 집의 위험성은 가이언과 팔머가 이 집에 도달하기 위한 항해에서 경험하는 난파의 위험을 통해 암시 된다: “다른 쪽에서 그들은/ 그들을 파괴할 것 같은 위험한 바위를 보았는데,/ 그 바위 절벽에는 파손된 배들의 잔해가 있었다”(2. 12. 7). 이 집의 위험성은 모단트의 아내 아마비아가 가이언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마녀 아크라시아가 기이한 힘을 이용해 자신의 애인을 지배하기 때

문에, 그녀의 사악한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녀[아크라시아]는 자신의 애인들을 흠뻑 취하게 한 후,/ 기이한 힘을 가진 언어와 약초를 써서,/ 사악한 자신의 뜻대로 그들을 움직입니다”(2. 1. 52). 이 집의 가장 중대한 사회적 위험성은 “생식이라는 더 절실한 과정이 아니라”(Evans 142) 성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는(2. 12. 72) 아크라시아가 자신이 유혹한 애인을 과도한 성적 쾌락에 탐닉하게 함으로써 결국 그를 인간이 아닌 동물 수준으로 타락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악한 아크라시아는 헛된 즐거움과
허망한 쾌락으로 자신의 환락의 집에서
애인들을 매혹하여, 나약한 인간의 몸에서
연약한 영혼이 빠져 나올 수 있게 하고는,
그들을 괴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The vile Acrasia, that with vaine delightes,
And idle pleasures in her Bower of Blisse,
Does charme her louers, and the feeble sprightes
Can call out of the bodies of fraile wightes:
Whom then she does transforme to monstrous hewes... (2. 5. 27)

이와 같이 “환락의 집”은 비록 여왕 글로리아나가 이유를 명백히 밝히지 않고 감추지만 여왕의 권력 유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정상적이며 위험한 곳이다. 왕권과 사회 모두에게 위협적인 이 집의 진압 과정은 무력 사용을 통해 제왕적 권력이 작동하고 감시적 권력의 작동 방식이 결합되어 진행된다. 글로리아나의 제왕적 권력의 충실한 대행자로서 자신의 강력한 무력을 사용해 여왕이 지시한대로 “환락의 집”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가이언은 여왕의 제왕적 권력을 드러내고 확인시켜준다. “하지만 무자비한 완력을 사용해 ‘가이언은/ 저 즐거운 집들과 멋진 궁전을 모두 무너뜨려버렸고...최근까지 가장 아름다웠던 곳을, 이제는 가장 흉측한 곳으로 만들었다”(“But all those pleasant bowres and Pallace braue,/ Guyon broke downe, with rigour pittillesse...And of the fairest late, now made the fowlest place”)(2. 12. 83). 그런데 이처럼 “환락의 집”은 제왕적 권력이 행사되어 파괴되

는 징벌이 가해지지만, 정작 이 곳에서 아크라시아의 마력에 의해 동물로 변해 그녀를 추종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아크라시아 자신도 제왕적 권력에 의해 죽음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에 이들은 푸코가 “감시적 사회”(“disciplinary society”) 논의에서 이론화한 것처럼(Foucault, *Power* 57),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개인을 치료하고 재활시키는 “사회적 정형화”(“social orthopedics”) 과정에서 작동하는 감시적 권력의 기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상적인 규범을 벗어난 행위가 교정됨으로써 정상화되고 재활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가이언의 요청에 따라 팔머는 자신의 마법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짐승으로 변한 인간들을 원래의 상태로 교정함으로써 저항을 받지 않고 그들을 정상적인 인간으로 재활시켜 준다. “곧 그[팔머]는 자신의 신통력 있는 지팡이를 그들에게 휘둘렀고,/ 그러자 곧 그 짐승들은 멋진 남자로 변신했다”(“Streight way he with his vertuous staffe them strooke,/ And streight of beasts they comely men became”)(2. 12. 86). 하지만 짐승으로 변한 인간을 다시 인간으로 바꾸어 정상화시키려는 팔머의 재활 시도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힐(Elizabeth Heale)이 “스펜서의 사실주의”(72)라고 부른 것처럼, “크게 불평하면서, 자신을 돼지의 형상에서 인간으로 바꿔준/ 그[팔머]에게 욕을 한”(2. 12. 86) 그릴(Grill)과 같이 인간으로 다시 바뀐 것에 항거하면서 동물의 상태를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가이언이 그릴에 대해 “이제 저자는 짐승이 되겠다는/ 용납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팔머는 더 이상 그릴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떠나자고 한다(2. 12. 87). 한 편, 나태한 연인 버단트와 함께 있다가 팔머가 던진 그물에 붙잡힌 아크라시아가 탈출을 시도하자(2. 12. 81), 가이언은 아크라시아를 단단히 묶어서 요정 여왕의 궁전으로 보낸다(3. 1. 2). 아크라시아는 “환락의 집”에서 악행을 저지른 중심인물이므로 팔머의 지팡이로 쉽게 정상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18세기 이후 등장한 교도소와 같이 더 강력한 재생 혹은 정상화 시도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지기 위해 여왕에게 압송되는 것이다.

III. 맺음말

엘리자베스 여왕의 권력 옹호자로 알려진 스펜서가 『요정 여왕』 제2권에서 제

왕의 권력을 분석하고 새로운 권력을 제시하며 이에 근거해 새로운 권력 사용 방식을 제안하는 권력의 탐구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는 단지 무력에만 의존하는 군주의 제왕적 권력이 상대를 제압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밝힐 뿐만 아니라, 푸코의 감시적 권력과 유사한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글로리아나의 “빛나는 왕권”을 통해 형상화하고 이 새로운 권력의 작동 방법이 더 효과적인 지배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환락의 집” 파괴 과정을 통해 기존의 제왕적 권력과 새로운 개념의 권력을 성공적으로 결합하는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군주가 두 권력을 함께 사용하는 권력 행사 방식을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한다.

1590년에 발간된 『요정 여왕』 초판본을 당시의 정치적 상황 속에 위치시켜 보면, 스펜서가 『요정 여왕』 제2권에서 상세한 권력 분석과 더불어 구체적인 왕권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통치 2기”(Guy 1)가 시작되는 1585년에서 1590년 사이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한 왕권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여왕의 권력 위기는 추밀원을 구성하는 귀족들처럼 여왕의 명령에 따라 국가를 관리하는 권력의 대행자인 귀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왕권에 저항함으로써 여왕의 권력이 약화되어 초래된 것이다.²³ 제왕적 권력의 대행

²² 자신이 직접 시를 쓰고 번역을 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스펜서의 『요정 여왕』의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목표 청중”(Bertolet 47)이기도 하다. “시를 통해 엘리자베스의 행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iamatti 240)고 믿는 스펜서는 자신의 시를 읽고 그녀가 아더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찾기를 바라면서 화자의 입을 통해 여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 그대 이름, 군주이신 여왕이시여, 당신의 영도와 백성은/ 이 유명한 왕자[아더]에게서 비롯된 것이니”(“Thy name O soueraine Queene, thy realme and race,/ From this renowned Prince deriued arre”)(2. 10. 4).

²³ 여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다른 남성 군주들과 달리 제왕적 권력을 안정적으로 갖지 못했다. 가부장제 사회인 영국에서 군주가 여성이라는 것이 여성 지배(gynecocracy)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야기해서, 녹스(John Knox)가 여성 지배를 “자연에 모순되고, 신에 대한 모독...올바른 질서의 전복”이라고 혹평하는 것처럼(Coles 33), 여성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공공연하게 일어남으로써 군주로서 엘리자베스의 제왕적 권력은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된다. 한 편 군주로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갖는 제왕적 권력은 여왕의 “통치 2기” 초기에 더욱 심하게 손상되고 축소된다. 여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일부 정부 관리들의 일탈 행동이 일어나 왕적 권력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 1586년 1월에 레스터 백작(Earl of Leicester) 로버트 더들리(Robert Dudley)는 “자신의 지배자[여왕]와 상의 없이 그리고 그녀의 분명한 명령을 위반하고” 네덜란드 총독(governor general)의 직책을 맡아서 공개적으로 취임함으로써(Doran 138-39), 신하로서 여왕의 제왕적 권력에 대한 공개적인 불복종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신하들의 점증하는 불복종과 저항은 이미 여성 군주라는 위치 때문에 약화된 엘리자베스의 제왕적 권력을 한층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더욱 무력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자인 가이언의 무력과 팔머의 새로운 지배 기술이 결합되어 “환락의 집”을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스펜서는 여왕이 무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귀족들을 왕권에 순응하고 유용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그들의 저항성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조언하는 것이다.

『요정 여왕』 초판본 발간이 1589년에서 1591년에 걸친 스펜서의 런던 여행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요정 여왕』 제2권에서 스펜서가 권력에 대해 논의하고 왕권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정치적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스펜서의 런던 여행 목적과 또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궁정시인이 되기 위해 런던을 방문하면서 스펜서는 자신이 시적 재주로 “눈치 빠르게 군주를 즐겁게 하는자”가 아니라 “학문 지식과 아일랜드에서 행정 경험 덕분에 궁정 관리의 자격을 갖춘 학식 있는 사람”(Oram 24)이라고 믿는다. 『요정 여왕』 제2권에서 권력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참신한 지배 방법을 조언하는 자신을 부각시킴으로써, 스펜서는 자신이 여왕의 호의를 받아 궁정에 관직을 얻을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는 것을 뚜렷이 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서사시를 기반으로 궁정에서 여왕의 신하로서 일할 기회를 얻으려는 스펜서의 시도는 여왕의 구체적 반응이나 스펜서 자신의 이후 행적을 보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엘리자베스는 『요정 여왕』 초판본에 대한 자신의 “복잡하지만 뜻이 이해될만한 반응”으로 “스펜서에게 50 파운드의 연금을 하사했다”(Frye 145-46). 여왕이 스펜서에게 적은 금액의 연금을 준 것은 “그녀가 그에게 한직이라도 주기를 원하지 않았기”(Frye 146)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런던에서 아일랜드로 돌아간 이후 스펜서의 행태 또한 자신의 서사시를 통해 궁정 관직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성취되지 못한 것을 암시해 준다. 『요정 여왕』 초판본에 포함된 제1권에서 제3권은 “헌신적인 궁정인”으로서 여왕과 화자의 긴밀한 관계를 암시하면서 여왕에게 직접 말을 거는 형식이지만, 런던 여행 이후 발간된 『요정 여왕』의 제4권에서 제6권은 여왕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말하는” 형식으로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Oram 40).

『요정 여왕』이 자신이 원하는 궁정 관직을 얻게 도와주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서사시에서 스펜서는 여왕의 왕권을 찬양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왕권을 분석해서 한계를 찾아내고 이를 보완할 새로운 지배 방법을 탐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가면 속에 감추어진 권력의 실체를 찾아 드러내는 『요정 여왕』 제2권

의 시인 스펜서는 푸코보다 약 400년 앞 선 진지한 권력의 탐구자로서, 권력의 본질적 요소와 그것의 작동 방식을 여왕에게 가르치는 권력의 교육자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스펜서, 『요정 여왕』 제2권, 권력, 가이언, 팔머, 기사, 환락의 집, 엘리자베스 1세 여왕, 글로리아나

인용문헌

- Bertolet, Anna Riehl. "Figures of Elizabeth." In *Edmund Spenser in Context*. Ed. Andrew Escobedo. Cambridge: Cambridge UP, 2017. 42-52.
- Coles, Kimberly Anne. "'Perfect hole': Elizabeth I, Spenser, and Chaste Productions." *English Literary Renaissance* 32 (2002): 31-61.
- Collinson, Patrick. "The Monarchical Republic of Queen Elizabeth I." *Bulletin of the John Rylands Library* 68 (1987): 394-424.
- Cooney, Helen. "Guyon and His Palmer." *The Review of English Studies* 51 (2000): 169-192.
- Danner, Bruce. *Edmund Spenser's War on Lord Burghley*. Houndmills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 Doran, Susan. *Elizabeth I and Her Circle*. Oxford: Oxford UP, 2015.
- Evans, Maurice. *Spenser's Anatomy of Heroism: A Commentary on the 'Faerie Queene'*. Cambridge: Cambridge UP, 1970.
- Foucault, Michel. *Abnormal: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4-1975*. Trans. Graham Burchell. London and New York: Verso, 2003.
- . *The Birth of the Clinic. An Archaeology of Medical Perception*. Trans. A. M. Sheridan Smith. New York: Vintage, 1994.
- .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Vintage, 1979.
- . *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 Trans. Robert Hurley. New York: Penguin, 1978.
- . *Power*. Trans. Robert Hurley, et. al. New York: The New Press, 2000.
- .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Trans. Colin Gordon, et. al. New York: Pantheon Books, 1980.

- .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7-78*. Trans. Graham Burchell.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9.
- .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5-76*. Trans. David Macey. New York: Picador, 1997.
- Frye, Susan. *Elizabeth I: The Competition for Representation*. New York: Oxford UP, 1993.
- Giamatti, A. Bartlett. "Elizabeth and Spenser." In *The Spenser Encyclopedia*. Ed. A. C. Hamilton, et. al. Toronto: U of Toronto P, 1990. 238-42.
- Greenblatt, Stephen. *Renaissance Self-Fashioning: From More to Shakespeare*. Chicago and London: The U of Chicago P, 1980.
- Guy, John, ed. *The Reign of Elizabeth I: Court and Culture in the Last Decad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P, 1995.
- Hadfield, Andrew. "Duessa's Trial and Elizabeth's Error: Judging Elizabeth in Spenser's *Faerie Queene*." In *The Myth of Elizabeth*. Ed. Susan Doran and Thomas S. Freema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3. 56-76.
- . *Edmund Spenser's Irish Experience: Wilde Fruit and Savage Soyl*. Oxford and New York: Oxford UP, 1997.
- Heale, Elizabeth. *The Faerie Queene: A Reader's Guid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P, 1987.
- Helfer, Rebeca. *Spenser's Ruins and the Art of Recollection*. Toronto: U of Toronto P, 2012.
- Herron, Thomas. *Spenser's Irish Work: Poetry, Plantation and Colonial Reformation*. Aldershot, England and Burlington, VT: Ashgate, 2007.
- Leslie, Michael. "Spenser, Sidney, and the Renaissance Garden." *English Literary Renaissance* 22 (1992): 3-36.
- Marx, Karl. *The Ethnological Notebooks of Karl Marx*. Ed. Lawrence Krader. Assen, Van Gorcum, 1972. In Simon Shepherd. *Spenser*. New York and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89. 3.
- Miller, David Lee. *The Poem's Two Bodies: The Poetics of the 1590 "Faerie Queene"*. Princeton: Princeton UP, 1988.
- Montrose, Louis. "Spenser and the Elizabethan Political Imaginary." *ELH* 69 (2002): 907-946.
- O'Farrell, Clare. *Michel Foucault*. London an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2005.
- Oram, William A. "Spenser in Search of an Audience: The Kathleen Williams

Lecture for 2004." *Spenser Studies* 20 (2005): 23-47.

Spenser, Edmund. *The Faerie Queene*. Ed. A. C. Hamilton.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77.

----. *The Yale Edition of the Shorter Poems of Edmund Spenser*. Ed. William A. Oram, et. al. New Haven: Yale UP, 1989.

Tonkin, Humphrey. *The Faerie Queene*. Oxon and New York: Routledge, 1989.

Williams, Kathleen. *Spenser's World of Glass: A Reading of the Faerie Queene*.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66.

K C I

ABSTRACT

Unmasking Power in Book 2 of Spenser's *The Faerie Queene*

Inchol Yoo

By analyzing Spenser's Book 2 of *The Faerie Queene* on the basis of Foucault's discussion of power, this paper attempts to reconfigure the poet freshly as an inquirer of power, thus shedding new light on his relationship to Queen Elizabeth I. For his glorification of the fairy queen Gloriana in the epic poem, Spenser has conventionally been criticised as an upholder of monarchical power. However, he does not just praise the queenship in the the second Book; more importantly, to use Foucault's own terms, Spenser explores the nature and limits of sovereign power and suggests another new form of power, which is similar in its operation process to disciplinary power. Moreover, through his detailed description of the final scene in the Book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Bower of Bliss, he shows how effective it is to combine the sovereign power and the new power similar to Foucault's disciplinary power. After discussing how Spenser unmasks the core elements and mechanism of the two forms of power and suggests an ideal way of exercising power, this paper concludes that as an inquirer of power, Spenser could play in the Book the role of an educator of the queen, instructing her how to control her subjects effectively in time for the crisis of her sovereign power.

Key Words | Spenser, Book 2 of *The Faerie Queene*, power, Guyon, Palmer, knight, the Bower of Bliss, Queen Elizabeth I, Gloriana

원고 접수 2017년 7월 21일 | 심사 완료 2017년 8월 14일 | 게재 확정 2017년 8월 22일